



[뉴스] 헝가리 찾은 신동빈 전기차 배터리 공략 양극박 추가 투자

창간 20년 since 20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 | | | |
|------------|------------------|-----------|----------------------|
| 코스피 | 2342.81 (-66.12) | 코스닥 | 746.96 (-31.34) |
| 금리 (미국 3년) | 3.522 (-0.141) | 환율 (원/달러) | 1297.3 (+3.70) (22일) |

리필하고 종이 대체 플라스틱 사라진다

넷제로 대전환의 시대

4 유통가 '脫플라스틱' 바람 (끝)

유통업계는 저탄소를 통한 친환경에 기여하기 위해 플라스틱을 줄이거나 재생하는 등 '탈(脫) 플라스틱' 운동에 뛰어들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1인 가구용으로 소분해서 파는 제품들 외에 옥수수나 단호박, 무 등의 농산물들도 날개 판매를 하고 있다. 이마트는 품목의 특성을 고려해 앞으로 날개 판매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홈플러스도 이번주부터 날개로 이미 판매하던 품목들을 파프리카, 무, 감자, 고구마, 양배추, 콜라비 등 11개

컵을 도입했는데, 현재 플라스틱컵과 병행해서 판매를 운영 중이다.

패션 분야에서는 비와이엔블랙야크(블랙야크)가 탈플라스틱 활동을 선도하고 있다. 블랙야크는 최근 서울시와 13개 기업들이 참여하는 민관협력네트워크에 참여해 일회용품 감소에 노력을 쏟고 있다. 제품·마케팅·플랫폼 등 브랜드 경영 전반에 걸쳐 '그린야크'라는 친환경 캠페인 운영 노하우를 활용, 제로웨이스트 운동을 펼치고 있다.

물류에 친환경 모빌리티를 도입하는 등 물류 과정에서 탄소 줄이기 시도를 하는 기업도 있다. 바로 신사업으로 물류 대행 서비스를 선보이며 물류 시장에 진출한 hy(구 한국야쿠르트)다.

hy는 지난 3월 사명 변경과 동시에 유통 전문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농산물 날개 판매품목 확대 샴푸 등 리필 스테이션 마련 선물세트 보강재, 종이 변경 플라스틱 재활용 의류 제작



지난 20일 서울 중구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당근을 날개로 구매하고 있다. /뉴시스

물류 친환경 모빌리티 도입 매년 없는 저탄소 이동 실현

품목으로 확대해 판매하고 있다.

대형마트별로 따로 추진하고 있는 탈 플라스틱 제도들도 있는데, 롯데마트는 PB(자체 브랜드)상품을 중심으로 친환경 원재료와 포장재를 도입하고 있다. PB상품 제작 시 '리무버블 스티커 사용' '에코 절취선 적용' '재사용 포장재 사용' '친환경 소재 대체' 등 7대 친환경 패키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

이마트는 매장에 '리필 스테이션'을 마련해 소비자들이 샴푸나 세제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만큼 빈통에 부어갈 수 있도록 리터당 요금을 받고 있다. 플라스틱 제품 용기를 생산 및 폐기하는 횟수를 줄이도록 한 것이다.

홈플러스는 "선물세트 안에 들어가던 보강재들을 모두 종이 재질로 변경했다"면서 "이를 위해 선물세트 기획 단계부터 안전성 면을 고려해 보완해 판매해 왔으며 이번 추석에도 그렇게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편의점에서는 판매 제품 순위 1순위를 달리던 얼음컵부터 플라스틱에서 종이로 변경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올해 3월부터 종이 얼음

후 보유 중인 프레스 매니저(배송원) 유통망을 이용한 '프레딧 배송 서비스' 사업을 벌이고 있다. 21일을 기준으로 11개 업체와 제휴 배송 계약이 완료되었다.

대표 업체로는 와이즐리(면도기), 윤식단(샐러드), jnh(끼리치즈온라인 유통업체)가 있고, 이들의 정기 배송을 맡아 hy 프레스 매니저들이 전국을 누비고 있다. 같은날 기준으로 프레딧 배송 서비스는 하루 7만2000건의 배송을 처리하고 있으며, hy 논산 신물류소가 완공되는 시점인 이달 말부터는 하루 25만2000건의 물량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이 hy 배송들을 전동 카트 '코코'를 이용해 친환경 배송으로 제품을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기를 사용해 물류를 이동시키기 때문에 매년 없는 배송으로 저탄소를 기본적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hy 프레스 매니저들은 제품 하나도 정기 구독형으로 배송해줘 고객이 배송이 불필요한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출발해 촬영한 지구 영상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유튜브 캡처

이제 발사체 넘어 달 탐사 '카운트다운'

8월 韓 첫 달 탐사선 '다누리' 발사 성공면 7번째 달 탐사국 대열 올라

정부는 국내 최초의 달 탐사선인 '다누리'를 오는 8월 발사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31년 달 착륙선을 자력으로 보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8월 2일(현지시각) 오후 7시 37분 달탐사선인 '다누리'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운영하는 스페이스 X의 팰컨9에 실려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할 계획이다. 국내 시간으로는 8월 2일 오전 8시 37분에 진행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달 궤도 탐사에 도전하는 것으로, 국내 최초로 지구 밖 탐사에 나서는 것이며 이때부터 본격적

으로 대한민국 우주탐사의 역사가 시작된다고도 볼 수 있다. 다누리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한국은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인도 등에 이어 7번째 달 탐사국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21일 오후 4시에 발사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목표 궤도에서 성능검증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한 데 이어 이날 오전 3시 1분께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과의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다누리' 내년 2월 임무 수행 착수

우리나라가 달 탐사에 나서는 것은 글로벌 우주 개발 경쟁이 가열되는 시점에서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우주 탐사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2025년 달에 유인 우주선을 보내고 2028년 달 유인기지를 만드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 주도의 '아르테미스 플랜'의 참여국으로서 국제적 위상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3면에 계속> /채윤정 기자 echo@

메트로경제 '2022 제4회 퓨처푸드테크 코리아' (오늘 오후 2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3층)

바닥은 어디... 2,340선·740선으로 추락

<코스피>

<코스닥>

개인 매수, 외인·기관 매도세 코스닥도 4% 폭락 연저점 경신

한국증시가 전날 반등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또 다시 급락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다시 연저점을 경신했다.

22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6.12포인트(2.74%) 하락한 2342.81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는 12.1포인트(0.14%) 오른 2417.11에 개장했지만, 이후 큰 반등없이 하락하면서 2350선을 하회하면서 이를 만에 또 다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종가는 2020년 11월 2일의 2,300.16 이후 1년 7개월여 만의 최저치다.

개인의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과 기관이 팔아치우면서 지수를 끌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연중 최저점을 기록한 2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내렸다. 이날 개인 투자자는 3768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203억원, 853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

별로는 의료정밀(-4.37%), 비금속광물(-4.27%), 화학(-4.26%), 섬유·의복(-4.03%) 등 4% 이상 크게 하락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달러·원 환율이 장중 1298원 가까이 오르며 원화 약세폭이 커졌다"며 "외국인과 기관 매물 출회까지 부담으로 작용하며 코스피가 재차 연저점을 하회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코스닥 역시 4% 가량 폭락하면서 연저점을 경신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31.34포인트(4.03%) 하락한 746.96에 장을 마쳤다. 이는 지난 2020년 7월 2일(742.5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코스닥에서도 개인이 1257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14억원, 603억원을 순매도했다.

/이영성 기자 ysl@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김건희,尹 나토 순방 동행... 대통령실 "배우자 세션 가급적 참여" /사진 뉴시스
- ▲尹, 나토서 한미일 정상회담 가능성... 北비핵화 지지 호소

- ▲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겪은 주한미군, 한국 다시 찾는다
- ▲ 누리호 발사일 軍 소집한 김정은... 초유의 연장 중앙군사위



- ▲尹, 나토서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발표... "무기 우회 지원 안해" /사진 뉴시스
- ▲ 민주당 새선들 "대선·지선 패배 책임자 전대 나서지 마라"